



‘조미료’ 해외 포장 트렌드

Overseas Trend of Packaging for “Ajinomoto ; seasoning”

金子晴海 / 아지노모토(주) 조미료 · 식품 컨퍼니상품개발센터글로벌공업화그룹 전임과장

1. 서론

‘아지노모토’는 일본말의 ‘감미조미료’로서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미료이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는 조리 시에 없어서는 안되는 조미료로 애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나라들에서 ‘아지노모토’를 처음으로 그 외의 각국에서 제조 · 판매되고

있는 당사의 조미료 및 식품정보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1.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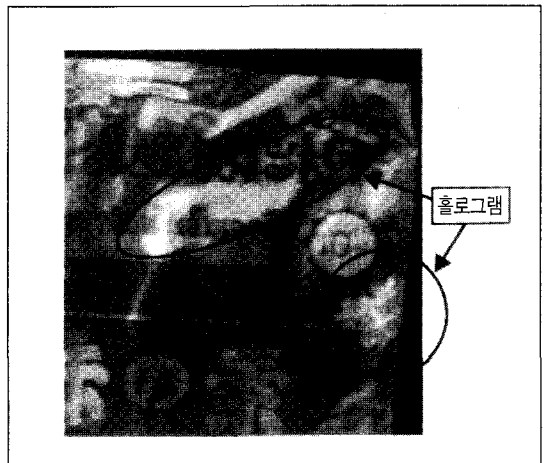
태국의 ‘아지노모토’는 [사진 1]이다.

일본의 ‘아지노모토’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필름을 자세히 보면 홀로그램처리 되어 있다

[사진 1] 태국 ‘감미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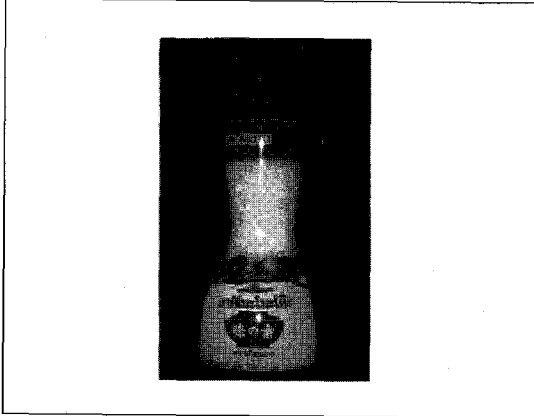


[사진 2] ‘감미료’ 홀로그램





[사진 3] 용기에 담은 감미료



[사진 5] Lite Sugar



[사진 2].

이 홀로그램의 부분은 위조제품의 대책이다. 해외에서는 똑같이 만든 포장을 제작하여 내용물을 섞거나 해서 위조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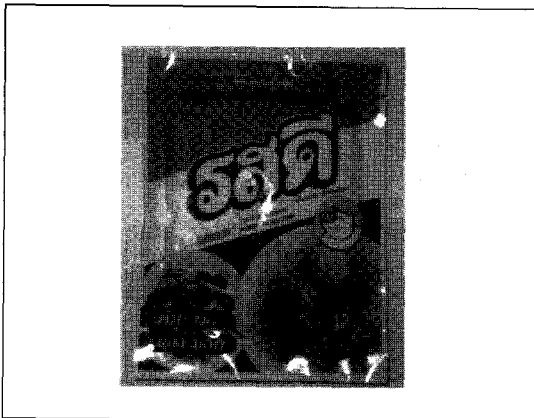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정품을 증명하기 위해 포장에 홀로그램을 넣고 있다. 이것도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또다시 같은 위조품이 만들어지기 때문

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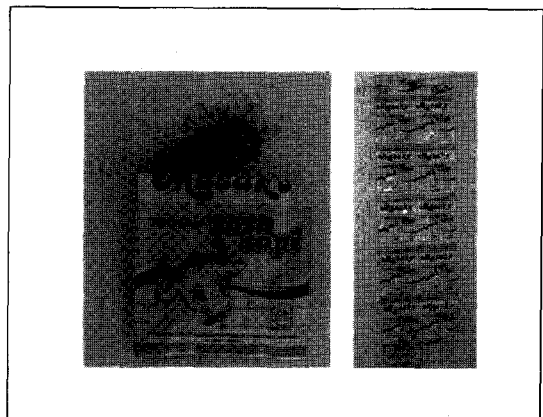
같은 '아지노모토' 이지만 [사진 3]은 재미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한눈에 보기에는 '맛소금'과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아지노모토인 PET형 용기이다.

태국에서는 아지노모토의 이외에 'ROS DEE' 라는 풍미조미료[사진 4], 'Lite Sugar' 라는 감미료[사진 5], 그 밖에 'Birdy' 라는 캔

[사진 4] ROS DEE



[사진 6] MASAKO



[사진 7] 인도네시아 상점



커피 등 그 외 여러 가지 조미료와 식품을 포장하고 있지만 그 포장형태는 일본의 제품과 거의 흡사한 형태이다.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제조하고 있는 조미료에 'MASAKO' 라고 하는 비프와 치킨레퍼의 풍미 조미료가 있다[사진 6].

이들의 조미료는 현지의 기호에 맞게 만들고 있다. 앞서 말한 태국의 'ROS DEE' 도 같다. 일본의 기술을 토대로 현지의 모든 이에게 사랑 받는 조미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풍미조미료는 과립상태로 되어 있으나 흡습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알루미늄 상자 구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포장형태는 작은 봉지, 스탠딩 파우치도 있지만 [사진 6]의 우측과 같은 캘린더타입도 많이 제조되고 있다.

이것은 [사진 7]과 같은 웨트 마켓에서 가게

앞에 걸려 조금씩 나눠 판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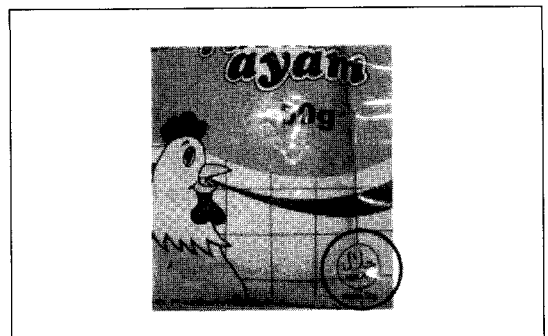
이슬람교도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교도 고객에게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HALAL의 인증마크를 표시하고 있다[사진 8].

3. 베트남

베트남에서도 앞서 말한 나라들과 같은 사고로 제품의 포장구성과 포장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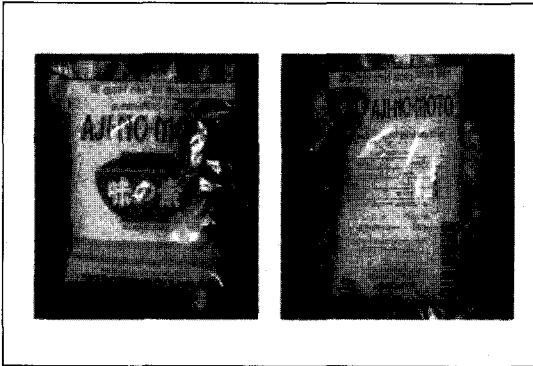
베트남의 아지노모토 [사진 9]이다.

[사진 8] HALAL 인증표시





[사진 9] 베트남 감미료



표시가 베트남어라는 것을 빼면 각국의 아지노모토와 같은 형태이다. 뒷면에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요리에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적인 사용량이 기재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aji-ngon' 라는 풍미조미료가 포장되고 있다.

[사진 10]은 'aji-ngon'의 2차 포장을 하고 있는 작업원이지만, 당연한 말로 동남아시아에서도 일본과 같게 작업원의 교육을 포함하여 위생관리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조를 하고 있다.

[사진 10] 포장작업원



4. 중국

중국에서는 경제의 발전에 따라 구매의욕도 높아져가고 있어 일본에서도 많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지만 아지노모토에서도 많은 식품분야에서 상해를 중심으로 신제품을 내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떤 상품의 중국진출에 따른 포장설계·설비도입에 대해서 생각방식, 힘들었던 이야기 등 담당자의 보고를 위주로 하여 약간 불평불만으로 들리는 부분도 있지만 소개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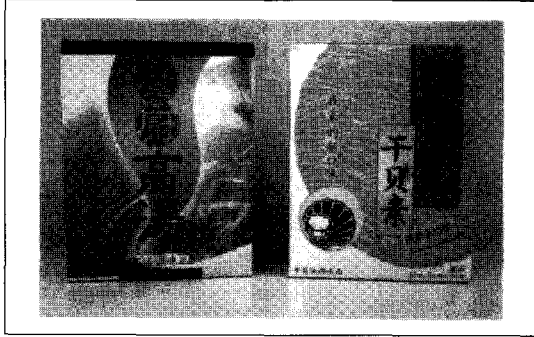
4-1. 포장설계

설계기준, 포장선정은 일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포장재료의 메이커는 중국계, 외자계를 불문하고 선정후보 하였으나 설계의 기준을 일본에 맞추면 메이커는 일본계 또는 일본계 메이커로부터 기술공여를 받은 메이커로 추리게 되었다. 범용수지로는 중국제품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알루미늄상자 등이 라미네이트 되는 구성에서는 일본계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

4-2. 포장설비

중국에는 포장기계메이커가 난립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형태의 포장기는 조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기술레벨은 천차만별이다. 이번의 자동계량포장기, 반송 콘베어, 외상봉합기(外箱封緘機) 등에 대해 중국계 메이커를 채용했지만 아지노모토의 요구사항 설비를 스케줄에 맞춰 도입하기 위해 몇 번이고 현지 출장과 기술지도가 필요하였다. 그래도 무엇을 도입 하였는지 도입

[사진 11] 중국 제품



후에도 완벽하지 못한 조립, 재료결함에 기인한 베어링낙하, 용접부품탈락, 스프링파손 등이 줄 이어 발생하여 현지 메이커와 일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4-3. 공장 레이아웃

중국에서도 품질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공장설계는 식품 GMP 기준에 준거하여 설계되어 있다.

제조공정 · 충전공정 · 창고구분을 명확화 하여 작업원의 복장도 각 공장구분별로 설정하고 있다.

생산 현장으로의 입 · 퇴장 물을 엄격하게 운용하여 구역구분의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4-4. 포장공정 설계

설비트러블이 발생해도 간편하게 복구가 가능하게 설비는 대부분이 반자동형으로 되어 있다.

포장품질은 공무담당 및 노무요원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 공정별로 담당책임자를 두어 공정관리를 엄격하게 기록하여 책임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있다.

또한 모든 공정에 SOP를 설치하여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4-5. 결론

포장설계, 설비도입, 현장운영의 전부에 있어서 품질기준, 작동규정, 책임범위의 '명확화'가 중요하며 특히 중국에서는 일본과 비교하여 '명확화'를 더욱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결론

이와 같이 아지노모토에서는 동남아시아, 중국에서 아지노모토 및 각 국의 기호에 맞는 품미조미료 등을 제조 · 포장하고 있다. 그 각각의 나라에 사정이 있으며 그것에 대응한 포장재료의 설계, 포장사양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품질에 관한 마인드나 그것에 대응하는 자세에 변함은 없으며 '맛있는 것을', '안전하게', '싸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설계를 가슴에 품고 약진하고 있다. ☺

기술원고를 모집합니다.

포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발표할 업체와 개인은 '월간 포장계' 편집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실 : (02)835-9041

E-mail : kopac@chollian.net